

생명연구원, 천연 염증치료제 개발

세포간 접착인자 결합작용 조절로 염증 낮춰 ... 신일제약에 기술이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천연물의약연구센터 노문철, 김영국 박사팀이 천연 식물 추출물에서 염증 치료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4월28일 발표했다.

염증치료물질은 생강과의 열대식물인 초두구와 호초(후추)에서 추출한 것으로 세포간 접착인자인 sICAM-1과 LFA-1의 결합 작용을 조절해 염증반응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포간 접착인자는 염증세포를 염증발생 부위로 이동해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 단백질로 초기에 작용해 염증 반응을 증폭시킨다.

또 추출물을 포르말린을 이용해 만성 염증을 일으킨 실험동물에 10일간 투여한 결과, 염증에 의한 발의 두께 및 부피 증가, 염증세포 침윤 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절염, 골다공증, 천식 등과 같은 만성염증성 질환은 스테로이드 약물 또는 콕스(Coax) 저해제 등을 사용해 왔으나 장기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했다.

생명연구원은 개발 활성물질을 국내외에 특허로 출원하는 한편 신일제약에 26억원의 기술료 등을 받고 기술을 이전한다.

노문철 박사는 “세포 접착인자간 결합을 조절하는 활성 물질을 개발해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한 것으로 천연 추출물이어서 장기간 복용하더라도 부작용은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4/29>